

# 산촌공동체 성장 지원 탄력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 무주군, 호롱불마을 등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7000만원 사업비 확보

무주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최한 2021년도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는 산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주민주도의 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통한 산촌공동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무주군에서는 안성면 솔내음산촌생태마을이 '단독형(2,000만원 확보)'에, 무주군산촌생태마을협의회(호롱불마을, 삼도봉권역, 하늘짜마, 금척마을, 삼향산재고을 / 5,000만원 확보)가 '협의체형'에 선정됐다.



무주 호롱불마을 카누체험.

무주군에 따르면 솔내음산촌생태마을은 계곡과 숲, 오토캠핑장 등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무주군산촌생태마을협의회는 '무주 숲 속에서 1주일 살아가기, 숲 속에서 자연을 담다'라는 주제로 참여 마을들을 연계한 산촌치유체험상품을 기획해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산촌·치유·문화·자연체험에 입산물 구매를 다한 '고품질체험', 산촌과 관광지를 연계시킨 '1주일 체류 프로그램',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숲과 힐링, 치유를 제공하는 '소인원체험' 등 대상과 체험내용, 기간, 계절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산림소득팀 김승준 팀장은 "사업이 본격화되면 산골무주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사과체험을 비롯해 숲길 트래킹과 카누, 산촌음악회, 나뭇놀이 등 계절과 마을 특색에 맞춰 발굴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들과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는 솔내음산촌생태마을과 무주군

산촌생태마을협의회가 프로그램 건립을 받는 것을 비롯해 산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의 준비와 운영을 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무주군산촌생태마을협의회 박희숙 대표는 "공모를 준비하면서 생긴 마음 간 연대감과 공모 선정으로 얻은 자신감으로 제대로 된 산촌체험 프로그램을 확정·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가 농의소득을 올리는 계기가 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과 기운 빠진 주민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 선정 체육기금 40억원 확보... 89억원 투입 2024년 완공 목표

진안군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체육기금 4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을 조성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체육시설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명명하고 체육 기금 40억원과 군비 49억원 등 총 8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2,400㎡의 규모로 진안읍 체육공원 부지(다목적구장 맞은편)에 건립한다.

센터는 수중운동실을 포함한 복합



전춘성 진안군수

체육관형으로 편의시설,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금년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설계용역 후 공사에 들어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최신의 체육 인프라가 구축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전문 체육지도자의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및 재활을 통해 사회적 비용감소 및 인식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체육 활동 참여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진안군 최초 장애인 시설인 만큼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이 되도록 꼼꼼히 챙겨 건립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국제캠핑장서 펫캠핑 22일 개최

진안군은 오는 22일 진안국제캠핑장(진안군 용담면 와룡길 165-6)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친환경 캠핑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명 시대에 맞춰 코로나 일상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여행 수요를 최근 여행 트렌드인 캠핑과 결합한 것이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기반조성과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서 올해 처음 기획한 시범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진안군-관련 업체가 공동 협력해 추진한다.

진안 국제캠핑장 펫(pet)캠핑상품은 소셜커머스(티몬)에서 행사 전날인 21일까지 3만8,900원(캠핑 1박 + 반려동

물 간식 1팩 + 마이산 입장권 + 지역 화폐 1만원)에 구매·이용 가능하다. 행사장에는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행동교정 전문가가 행사기간 동안 직접 캠핑장 현장에 상주하며 반려동물 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진안군은 반려동물과 안전하고 즐거운 진안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마스코, 손수족제, 삼군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길, 반려동물 동반 카페, 주요 관광지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진안 곳곳을 홍보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경남 관광박람회서 '진안 관광' 알린다

### 20-22일 언택트 관광지 집중 홍보

진안군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급감한 관광객 유치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 회복 수요에 대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청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1 경남 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

경상남도, 창원시가 주최하고 경남관광박람회사무국(주)케이앤씨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와 여행관련 업체 등 100개사, 350여개 부스를 설치하는 박람회로 참가 관광객 규모가 약 1만명에 달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결과 진안으로 여행을 오는 경남지역 관광객이 최근 3년간 43만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남 지역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관광홍보관과 홍삼 등 진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진안군 홍보 영상 송출할 계획이며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따라 진안을 대표하는 마이산,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진안고원길,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등 안전하고 특별한 관광지, 언택트 관광지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진안 관광 홍보관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고 진안군 SNS 채널을 구독하면 다양한 관광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발굴 박차

장수군은 기후 온난화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작목 발굴을 통한 소득원 창출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체작물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장수군은 이상기온에 따

른 과수 재배지 적지 변동과 제한된 특정 작목 재배에 의한 연작장애 방지 및 소득원 창출을 위해 아열대 작물을 도입해 시범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열대작물 시범 육성을 위해 군은 농업기술센터 내 첨단하우스 92

㎡를 조성하고 애플망고, 패션프루트, 만감류 등 5종의 아열대 작목에 대한 실증재배를 추진한다.

또 도비 6,000만원을 투입해 애플망고와 파파야 작목재배 시범농가를 병행 육성, 시설하우스 내 안정적인 재배가 작목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목표로 재배기술력을 정립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장수=교관호 기자

## 무주군, '현장 방역' 간부 공무원들도 동참

무주군이 간부 공무원들도 동참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현장 점검의 날'을 도입하면서 현장 방역의 실천력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진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다.

무주군에 따르면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6주간에 걸쳐 단체장을 비롯해 실과소 간부 공무원들이 소관 시설별과 지역별 방역 현장으로 직접 투입돼

정기 점검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전념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및 증상확인,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민원사항 처리 등이다.

현장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미이행하는 업소 또는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전춘성 진안군수 사찰 방역상황 점검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8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관내 사찰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전 군수는 쌍봉사 등 8개 사찰을 돌며 법회 유무를 확인하고 부처님오신날 법회를 열 경우 좌석수의 30%이내,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법회 후 공양(단체 식사) 금지, 각종 체험행사 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 군수는 연휴는 물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진안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농업인 상담소에 토양시료 수거함 설치

무주군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영농철 농가 편의 증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6개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비대면 토양시료 수거함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기존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려면 농가가 종합검정실에 직접 방문해 토양 검정 신청을 해야 했으나,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설치된 토양시료 수거함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사과, 배, 블루베리, 포도 등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친환경 토양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1년 마다 토양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토양 성분이 양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토양 검정 의뢰 시 필지 당 5~6군데에서 표토 1~2cm를 걷어내고 500g정도 채취해 골고루 섞은 후 시료봉투에 담아 성명과 지번 등을 기재하면 된다. 분석 기간은 보통 2주에서 최대 3주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검정 의뢰 시 작성한 주소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비대면 토양 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와 농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